

수인선 연수역 추가역무시설 협약체결식

김광재 이사는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 고남석 연구구청장 및 지역주민 등과 함께 7월 26일 연구구청에서 시행한 연수역 추가역무시설 설치를 위한 협약체결식에 참석했다. 연수역 추가역무시설 설치사업은 수도권본부(본부장 이수형)에서 시행하는 수인선 복선전철사업 중 '13년 6월 30일 개통한 오이도~송도간 연수역 주변의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사업비 전액을 연구구청이 부담하는 수탁공사로, 본 공사가 완료되면 연구구의 오랜 숙원이 해결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 이사는 협약식을 계기로 연구구의 민원 해결 및 철도 이용편의를 증진시키고 더 나아가 연수역과 연구구의 발전에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수도권본부 정종진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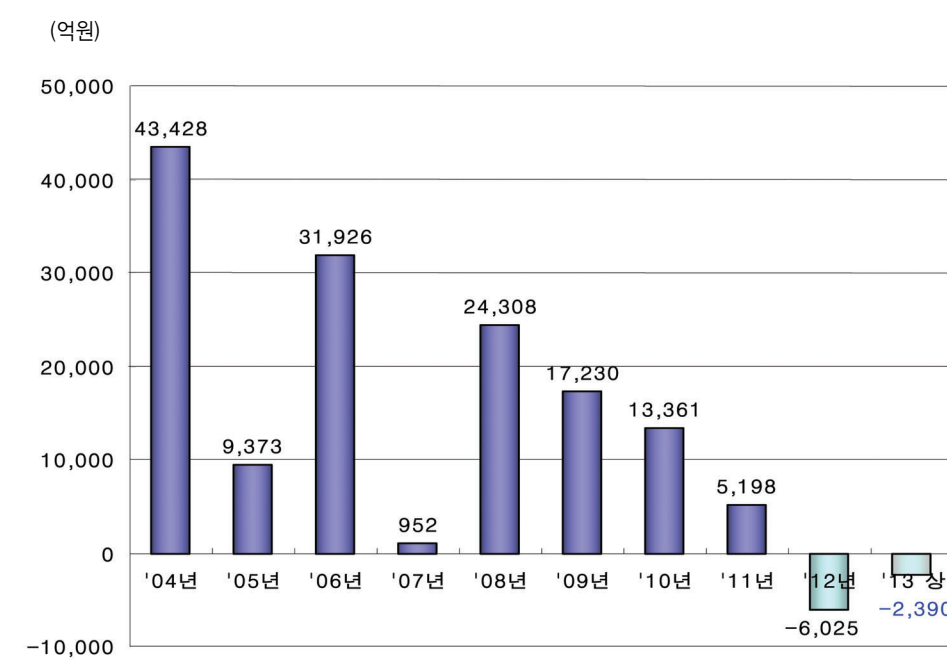


철도건설 투자비 절감에 솔선수범

- 상반기 총사업비 2390억원 감액 -

기획혁신본부(본부장 김영우)는 2013년 상반기에 35개 철도건설사업의 총사업비를 2390억원 감액함으로써 정부의 사회간접자본(SOC) 세출 구조조정 정책을 선제적으로 이행하고 있다. 본부는 2013년 현재 총사업비 68조7000억원의 35개 관리대상 사업 중 33개 사업을 관리하고 있으며, 매년 물가 및 현장 여건변동 등 불가피한 변경요인이 발생하는 경우 정부 승인을 받아 총사업비를 조정한다. 공단은 2004년 설립 이후 2011년까지 14조6000억원(연평균 1조8000억원)의 총사업비가 증가했지만 2011년 8월 현 이사장 부임 이후 경제설계 등 혁신을 통해 2012년도 처음으로 총사업비를 6025억원 감액한 데 이어 이번 상반기에도 2390억원을 절감했다.

본부 관계자는 “금년 하반기에도 운영을 고려한 경제적인 시설계획 수립과 함께 설계 가치공학(VE) 등 내부 심사를 강화하여 과잉설계를 방지하는 등 불요불급한 사업비 10% 절감운동을 적극 전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04~'12 철도건설사업 총사업비 증감 추이〉

원주~강릉 철도건설 노반 책임감리 6개 공구 계약 체결

경영지원실(실장 이계환)은 '원주~강릉 철도건설사업' 노반공사 7개 공구 중 공단이 직접 감독하는 1개 공구(5공구)의 건축·자문감리 용역을 인접하는 4공구에 포함하여 6개 공구로 책임감리용역 입찰을 시행, 7월 19일 6개 공동수급체(총17개 업체)와 계약을 체결했다. 책임감리용역은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라 용역사가 공단을 대신하여 시공사의 공정·안전·품질·환경·민원 등을 관리하는 업무로써, 2017년 준공을 위한 노반공사 단계별 발주계획에 따라 '원주~강릉 철도건설 노반 책임감리' 용역 1단계 4개 공구(계약금액 242억원)는 2012년 6월 계약완료했다.

이번 6개 공구(계약금액 321억원)는 지난 5월 6일 입찰공고하여 18개 공동수급체가 응찰했으며, 사업수행능력평가(1단계)와 기술자평가(2단계)를 거쳐 6개 업체를 최종 낙찰자로 선정했고 이중 중소기업은 8개 업체가 공동수급체 구성원으로 참여했다. 경영지원실은 대·중소기업 동반성장과 상생협력을 위해 입찰 공고 시 최소 3개 업체 이상

의 공동이행과 대표사를 기준으로 1개사의 중복낙찰을 허용하지 않는 1회1공구 낙찰제도를 적용했다. 원주~강릉 철도건설사업은 2012년 6월 1단계 4개 공구에 이어 나머지 6개 공구의 감리용역계약까지 이루어짐으로써 2017년 완공을 목표로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다.

〈원주~강릉 복선전철 노반 책임감리 용역 6개공구 계약 현황〉

공구명	구 간	연장 (km)	계약금액 (억원)/ 낙찰률(%)	계약상대자 (대표사)
원주-강릉 1공구	강릉도 홍서시 (지평~가현)	10.85	52 (74.14%)	(주)케이알티씨
원주-강릉 2공구	강릉도 홍서시 ~ 홍릉동 행정	11.57	50 (75.80%)	(주)동양기술공사
원주-강릉 3공구	강릉도 홍릉동 (홍성~우천면)	8.68	53 (75.90%)	(주)수성엔지니어링
원주-강릉 4공구	강릉도 홍성군 우천면	4.15	54 (75.78%)	(주)유신
원주-강릉 5공구	강릉도 홍성군 우천 ~ 평항군 봉평	19.45	73 (74.39%)	(주)삼기기술단
원주-강릉 6공구	강릉도 홍서시 (영산~구영)	4.11	39 (75.58%)	(주)이산
합계		58.81	321	

김포도시철도 5개 공구 공사에 10개 컨소시엄 PQ 신청

- 총 1조6553억원 투입, 2018년 11월 개통 예정 -

경영지원실(실장 이계환)이 총사업비 1조6553억원이 소요되는 김포도시철도 건설사업의 노반공사 5개 공구(9394억원)에 대해 7월 5일 설계·시공일괄입찰공사(턴키)로 발주하여 7월 22일 PQ신청을 마감한 결과 각 공구별로 2개 컨소시엄씩 총 10개 업체가 PQ신청서를 제출했다. 공단은 7월 29일까지 경영상태 부문과 공사이행능력 부문에 대한 입찰참가 자격을 심사한 후, 심사결과 업체에 대하여 8월 1일 현장설명회를 개최하고, 11월 1일 기본설계 도서를 제출받아 12월 2일까지 설계심의를 거쳐 실시설계 적격 대상자를 결정한다. 본 공사는 가중치기준 방식으로 제1,5공구는 설계점수 70%와 가격점수 30%, 제2,3,4공구는 설계점수 65%와 가격점수 35%를 적용하여 합당한 점수가 가장 높은 업체를 선정하는데 PQ 접수결과 각 공구별 모든 공동수급체가 지역업체를 1~3개 포함하여 접수함으로써 최대 15%까지 지역가점을 받는다. 경영지원실은 오는 12월까지 실시설계적격자가 결정되면 사업계획승인 절차를 거쳐 우선 시공구간부터 착공하여 노반공사와 시스템설치가 완료되는 2017년 말부터 2018년 7월까지 종합시운전을 시행하고 이어 3개월간 영업시운전을 거친 후 2018년 11월 차질 없이 개통한다.

〈PQ 신청서를 제출한 10개업체〉

구분 (사업비)	제1공구 (2,486억원)	제2공구 (1,403억원)	제3공구 (1,840억원)	제4공구 (1,341억원)	제5공구 (2,324억원)
대표사 기준	(주)포스코건설	한라건설(주)	대림산업(주)	현대산업개발(주)	한화건설(주)
	(주)대우건설	고려개발(주)	지앤지건설(주)	진흥기업(주)	동원산업(주)

중소협력사 손톱 밑 가시 적극 해결!

- 전기 감리 PQ 평가결과 공개, 공기연장 최소화 등 -

기획혁신본부(본부장 김영우)는 전기분야 후발업체의 사업 참여 기회 확대를 위해 시설개량사업을 적정규모로 분할하여 발주하고, PQ 평가의 상대평가부분을 절대평가로 개선했으며, 앞으로는 전기 감리 용역 PQ평가 점수 중 작업계획 및 기법 평가결과를 낙찰자 선정 후 공개할 계획이다.

또 공기연장으로 인한 중소기업사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간접비 발생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지역본부에서는 당해연도 적정 공정계획을 수립하여 공구별 적정 투입인원 산정 및 장비배치를 엄격히 관리하고, 본사에서는 투자우선순위 조정을 통한 적정 재원 배분, 예산집행 점검강화 및 공정지연 요인에 대한 만회대책을 철저히 시행할 계획이다.

본부는 6월 26일, 1~3차 협력사 대표 140명이 참석한 가운데 수평적 건설생태계 조성을 위한 상생토론회를 본사에서 개최하여 철도 건설현장에서 평소 느끼던 '손톱 밑 가시'인 고충사항을 듣고 해결책을 마련하는 등 중소기업사의 불편해소에 적극 나서고 있다.

앞으로도 본부는 중소기업사 현장 실무자로 구성된 동반성장 메신저의 활동과 설문조사 등을 통해 2~3중소협력사의 애로 및 건의사항을 적극 수렴하고 해결책을 모색할 계획이며, 이번에 나온 10건의 VOC와 하반기의 VOC를 모아 연도 말 개선 사례집으로 발간하여 1~3차 협력사와 공유할 예정이다.

인천공항 제1, 2여객터미널간 연결철도 낙찰자 결정

건설본부(본부장 김영국)에 따르면 7월 17일 시행한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연결철도 5.5km 건설공사'의 턴키 실시설계적격심의 결과 현대산업개발(주) 컨소시엄이 최종 낙찰됐다.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연결철도 건설공사는 늘어나는 항공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인천국제공항 3단계 건설사업의 일환으로, 인천국제공항공사에서 4329억원 사업비 전액을 부담하고 공단에서 시공한다. 본부는 신설 중인 인천공항의 제2여객터미널까지 공항철도(AREX)와 KTX 열차를 운행하기 위해 2013년 7월 31일 제2여객터미널과 제2여객터미널간 5.5km를 철도로 연결하는 공사를 착수했고,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개최 일정에 맞춰 2017년 말까지 개통할 예정이다. 턴키공사의 낙찰자가 결정됨에 따라 전면책임감리도 8월 초에 발주하여 공사 중 철저한 안전관리와 품질확보로 세계 제1의 위상에 맞는 공항철도 교통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지역과 인천공항간 KTX 이용객을 위해 시행중인 인천공항 연결철도가 올해 말 개통되면 부산에서 148분, 광주에서 131분 소요되어 1일 약 7737명이 빠르고 편리하게 인천공항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연결철도 건설공사〉

고속철도 연계 포항역사 건설

- 포항 지역과 수도권간 반나절 생활권으로 -



〈포항역사 투시도〉



〈철도건설 계획 노선도〉

건설본부(본부장 김영국)는 경부고속철도와 신경주~포항간 연결공사의 일환인 포항 신역사 건설에 본격 착수한다.

포항 신역사는 포항 신도시 이인리역세권 지구에 총사업비 340억원을 투입하여 지상 3층 규모로 건설되며, '13년 9월까지 시공사를 선정하고 10월에 착공하여 '14년 말 완공할 예정이다.

* 신역사가 건설되면 오포항역사는 철거할 계획임
포항 신역사까지 고속철도가 운행되면 새마을호 기준으로 5시간이 넘게 걸리던 서울~포항간 이동시간이 1시간 50분으로 크게 단축되어 포항과 동해안 지역주민의 교통편익이 크게 증진된다.

본부 관계자는 “포항 신역사는 경부고속철도뿐만 아니라 영천~신경주~포항('17), 울산~포항('18), 포항~삼척('18), 영일만 인입철도('16) 등 5개 철도 노선과 연계되어 동해안 지역의 주요 거점역 기능을 담당할 것”이라고 전했다.